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역사와 주빈국 선정의 의미

이 기 식, 고려대학교 독문학과 교수

2005년 5월

-
- 12세기부터 시작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서시장으로서 그 위상을 누린다. 여기에는 유리한 지리적 여건, 시장을 보호하려는 황제의 칙령이 큰 역할을 했다.
 - 30년 전쟁에 따른 불황과 고리대금업자의 횡포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8세기에 몰락하고, 대신 라이프치히 도서전이 발전하여 그 후 150여 년간 주도적인 역할을 떠맡는다.
 - 2차 대전 후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화려한 재기에 성공한다. 그 후 국제화의 전략과 시대 흐름에 민첩하게 대처하여 그 성공을 이어간다.
 - 주빈국 제도는 국제화 전략의 일부로 1988년에 처음 생겨났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빈국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리한 이점을 갖는다. 이 행사를 잘 치르면 세계 도서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다.
 - 주빈국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행사에 관심을 분산하기보다는 선택된 행사에 집중해야 된다. 독일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학작품을 출판하되, 책은 반드시 독일 출판사에서 발간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의 관심을 많이 끌어야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집인: 페터 가이,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2005년은 한국이 주빈국

우리나라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한다. 세계 최고, 최대를 자랑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국제 서적 시장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세계의 서적 애호가들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전시된 우리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바라볼 것이다. 올 가을은 우리 문화가 드디어 한반도라는 지리적 국경선을 넘어 세계 무대에 선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와 그 역사적 변모과정에서 생겨난 주빈국 제도와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발전하게 된 3가지 이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이전인 12세기부터 이미 필사본 도서가 거래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462년부터 인쇄업자 및 출판업자의 도서전으로서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 이후 프랑크푸르트는 라이프치히와 서로 경쟁을 하

면서 규모가 더욱 커져,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가장 손꼽히는 서적 거래 시장으로 자리를 굳혔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초창기에 이곳은 대학 도시도 아니었고 주요한 인쇄소 밀집 지역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곳이 국제적인 도서전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지리적으로 보면, 프랑크푸르트는 남북과 동서의 상로가 교차하는 곳이다. 즉 남쪽의 바젤에서 슈트라스부르크를 거쳐 쾰른,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어지는 남북의 상로가 이곳을 지나간다. 그리고 서쪽의 파리에서 시작하는 동서의 상로는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막데부르크와 라이프치히로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라인강과 마인강을 통한 화물 수송도 프랑크푸르트가 갖는 유리한 점이다.

두 번째로 프랑크푸르트는 상업하기에 좋은 분위기였다. 교회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던 시대에 교회는 주로 남부 유럽에 몰려있어, 프랑크푸르트는 교회의 엄격한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1240년에 칙령을 내려, 프랑크푸르트 정기시를 방문하는 모든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한다. 거기다 15세기 말에 교황 식스투스 4세는 프랑크푸르트 시민과 이곳을 방문하는 상인들에게, 사순절 금식과 같은 교회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마인츠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도시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마인츠가 마음만 먹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구텐베르크를 비롯한 마인츠의 인쇄업자들은 그들의 인쇄물을 팔기위해, 30Km 정도 떨어진 프랑크푸르트로 왔다. 그리하여 프랑크푸르트는 15세기 중반부터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을 거래하는 주요 시장으로 자리를 굳힌다. 이곳에는 독일뿐 아니라, 바젤, 파리, 베니스, 암스테르담, 런던, 크라카우 등에서 인쇄업자들이 와서 국제적인 도서전으로 발전을 거듭한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역사적 발전

1470년부터 책 인쇄는 빠르게 증가한다. 1480년의 경우 유럽에는 118개의 인쇄소가 있었는데 주로 남부 유럽에 위치했다. 인쇄물의 90% 정도가 라틴어로 인쇄되었던 당시에, 전체 인쇄물의 반 정도는 이탈리아에서 인쇄되었다. 독일은 이탈리아의 반 정도에 불과했다.

당시의 주요 인쇄 거점 지역 중에서 리옹, 슈트라스부르크, 바젤, 라이프치히는 도서관매 지역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프랑크푸르트는 주요한 인쇄소 밀집지역은 아니었지만, 유럽 책 시장의 중요 지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15세기부터 인쇄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책을 판매할 수 있게 되자, 책 유통에 따른 이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책을 팔고 살 사람들이 독일뿐 아니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등에서도 이곳으로 몰려 왔다. 이때부터 책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피할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

그렇다고 인쇄업자와 서적 상인만 이곳 프랑크푸르트로 온 것이 아니다. 도서관 사서들도 책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시인, 수학자, 인문학자, 신학자 등도 와서 새로 출간된 책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책을 사기도 하고, 출판업자에게 새 원고를 넘겨주기도 했다. 물론 전공학자들을 만나 토론을 하기도 했다.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린 것은 루터의 저서였다. 루터와 요하네스 에커와의 신학 논쟁집은 불과 3일 만에 1,400부가 팔리는 기염을 토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독일인들에게 팔리는 것은 루터와 그의 반대파 글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당시의 책값은 아주 비쌌다. 예를 들어, 루터가 번역한 신약은 송아지 2마리 또는 양 6마리 혹은 계란 1,300개의 값과 마찬가지로였다. 1522년의 경우에 루터의 신약은 하나의 1년 봉급과 맞먹는 가격이었다. 당시의 도서전 기간에 책을 거래하고 책을 가지고 토론만 한 것이 아니었다. 도시 전체가 축제 분

위기였고 참가자들은 많이 먹고 마셨다고 한다. 당시의 격언에 이런 말이있다. 프랑크푸르트에는 우물의 물보다 지하창고에 있는 포도주가 더 많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몰락

1618부터 30년간 지속된 이른바 30년 전쟁 시기에 독일 지역은 심한 불황을 맞게 된다. 프랑크푸르트도 예외가 아니었다. 외국인들은 30년 전쟁기간에 프랑크푸르트에 오지 않았다. 또한 카톨릭 서적 거래상들은 프랑크푸르트 대신에 남쪽의 잘츠부르크나 프라하로 발길을 돌렸다. 30년 전쟁으로 독일 남서 지역의 경제가 더욱더 어렵게 되자, 라이프치히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또 외국인들이 프랑크푸르트를 기피하면 할수록 그것은 라이프치히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30년 전쟁으로 어려워진 프랑크푸르트에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 벌어져, 1680-90년 사이에 모든 프랑크푸르트 출판사들이 빚더미에 걸터앉고 만다. 당시 거의 모든 출판사들은 두 사람의 유대인으로부터 빚을 얻어 쓰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자를 갑자기 높이는 바람에 당시 프랑크푸르트의 모든 출판사가 빚을 지게 된다. 예를 들면 한 카톨릭 출판사는 몇 년 사이에 빚이 2,800달러에서 16,640달러로 급증했다.

30년 전쟁과 빚더미에 걸터앉은 프랑크푸르트는 더 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18세기부터는 해적판까지도 거래되면서, 국제적 도서전이던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지역적 성격의 작은 도서전으로 몰락하고 만다. 이렇게 몰락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9세기 내내 별 볼일 없는 소규모 도서전으로 머문다. 반면에 시대의 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처하던 라이프치히는 18세기 중반부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그 후 약 150여 년 동안 중요한 도서전으로 명성을 누린다.

2차 대전 후의 화려한 재기

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라이프치히와 프랑크푸르트 모두 과거의 전통을 이으려고 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 미군이 라이프치히를 점령했다. 그러다 라이프치히가 소련군 점령 지역으로 바뀌면서, 라이프치히의 많은 서적 관련업체들은 미군과 함께 비스바덴으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구 동독의 경우 출판의 중심지도 라이프치히에서 동베를린으로 점차 이동하여 라이프치히 도서전의 재건은 어렵게 되어갔다.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도서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재기를 노력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도서전하면 라이프치히를 머리에 떠올렸고, 경제도 종전 후에 어려웠기 때문에 재기는 쉬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출판업자를 설득하고 프랑크푸르트 시장을 설득하여 제1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1949년 9월 17일에 파울 교회에서 개최한다. 물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다. 205개 출판사가 참가하여 8,400종을 전시하고, 14,000명이 방문했다. 독일역사상 최초로 1848년에 국민의회가 열렸던, 파울 교회를 전시장으로 선정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1950년의 제2회 도서전에는 주최측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출판사가 참가한다. 100개의 외국출판사와 360개의 독일출판사가 참가함으로써,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수백 년 전통을 이어 받는데 성공한다. 이로써 프랑크푸르트는 라이프치히 도서전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성공을 두고, 영국 출판가 스탠리 경은 1953년의 축하사에서 “프랑크푸르트의 피닉스가 라이프치히의 잿더미에서 비상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1968년 첫 참가에서
2005년에는 주빈국으로

우리나라는 학생운동으로 유럽전체가 혁명의 분위기에 휩싸인 1968년에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한다. 이 도서전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처음 참석한 나라는 볼리비아, 타이,

가나, 케냐, 콜롬비아, 필리핀, 싱가포르, 멕시코, 파키스탄, 우간다이다.

80년 대 후반부를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낸 필자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여러 번 방문했다. 우리나라에서 온 출판관련 종사자들은 전시장 주변부에 조그마한 전시 부스를 빌려 소박하게 전시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거대한 부스를 화려하게 장식한 독일이나 다른 나라의 거대한 출판사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다. 방문객도 별로 없으니 쓸쓸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독일의 어떤 언론도 한국에서 온 도서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 매일 매스컴에 보도되는 주빈국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이 부러웠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그 변두리 부스를 벗어나 주빈국으로서 그 무대의 중심부에 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 문화는 안타깝게도 외국에, 특히 유럽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그 때문에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초대되었다. 우리 문화가 어느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는지를 독일인에게 물어보자. 독일의 유명 일간지인 쥐트도이체 차이퉁의 주필을 지내고 빌레펠트 대학교 교수를 지낸바 있는 드레브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균적인 독일 독자는 한국 문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것이다” 또한 “흔히 한국을 일본과 중국에 비교하는데, 지역적 여건은 비교가 가능할지 몰라도 인지는 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는 이번의 주빈국 행사를 통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빈국이 됨으로서, 독일뿐 아니라 런던, 파리, 부다페스트, 모스크바, 뉴욕 델리, 베이징 등 세계 주요 도서 중심지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는 그간의 주빈국이 거둬들인 성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주빈국이 된 나라들을 살펴보자.

중점 테마 제도

중점테마 제도는 주빈국 제도가 생겨나기 이전에 있었다. 주빈국 제도가 국가 단위를 중

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중점테마는 당시의 주요 사회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76년의 중점 테마는 라틴아메리카 문학이었다. 라틴 아메리카 문학은 당시 미국과 프랑스의 일부 계층에서만 향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과 나머지 유럽 국가에서는 별 반응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화, 역사, 현실.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라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각종 토론회가 벌어진 다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라틴 아메리카 문학은 그 후 유럽에서 붐이 일어났다. 그뿐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라틴 아메리카 문학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연도별 주빈국 현황

연도	주빈국	연도	주빈국
1988	이탈리아	1997	포르투갈
1989	프랑스	1998	스위스
1990	일본	1999	헝가리
1991	스페인	2000	폴란드
1992	멕시코	2001	그리스
1993	네덜란드	2002	리투아니아
1994	브라질	2003	러시아
1995	오스트리아	2004	아랍권 국가
1996	아일랜드	2005	한국

출처: Peter Weidhaas, Zur Geschichte der Frankfurter Buchmesse, Frankfurt am Main 2003, 288-289쪽.

1978년의 중점 테마는 '어린이와 책'이었다. 어린이도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억압을 받는 소수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설계된 중점 테마였다. 1980년에는 아프리카 흑인 문학이 중점 테마였다. 이때까지 세상에 전혀 알려진 바 없던 아프리카 흑인 문학은 이것을 계기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1982년의 중점 테마를 '과거 종교가 현대에 갖는 의미'였다. 즉 과거에 생겨난 종교가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하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1984년의 중점 테마는 "오웰 2000"이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인도가 중점 테마였다. 그런데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테마를 다룬 것 중에서, 라틴 아메리카 문학과 아프리카 흑인 문학이 세인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면, 인도 문학은 상당히 비판적인 평가로 막을 내렸다.

주빈국 행사의 모델 이탈리아

중점 테마가 없는 해인 1987년 도서전에 베스트 셀러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가 개막식에 모습을 나타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주 독일 이탈리아 대사인 페라리스는 그 다음해에 이탈리아를 책의 나라로 알리는데 성공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많은 재정적 지원을 얻는 동시에 이탈리아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을 개막식으로 오게 만든다. 그리고 50년대에 지어진 낡은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을 축소판 이탈리아 궁전으로 변모시킨다. 이렇게 지어진 이탈리아 15세기 양식의 궁전에는 이탈리아 출판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었다. 그리고 16세기 및 17세기의 건축 양식에는 현대의 이탈리아 책이 전시되었다. 그리고 19세기의 궁정 양식에는 이탈리아 오페라와 음악에 대한 정보가 전시되었다. 그리고 전형적인 이탈리아 양식인 카페에서는 각종 문학 논의가 밤낮으로 벌어졌다.

여러 문화 행사를 통해서 이탈리아 이미지는 성공적으로 바깥 세상으로 전달되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때부터 수많은 이탈리아의 작품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탈리아의 이런 성공은 그 후 주빈국 행사의 모델이 되었다.

중점 테마제도에서 주빈국 제도로

1968년 학생 운동 이후 독일 언론들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자본주의적 성격에 대해서 가차 없는 비판을 가했다. 당시 대형 출판사들은 미국에서 도입한 베스트셀러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권투 선수 알리, 축구 선수 베켄바우어 등 유명인사의 자서전을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 전략을 갖고 있었다.

도서전 당국은 어떻게 하면 언론의 관심을 다시 끌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 고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중점 테마 제도다. 출판업자들은 중점 테마 제도로 인해서 도서전의 성격이 변하지 않을까 또는 도서전이 쇠퇴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주제로 1976년 도서전을 개막하자 모든 것이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한편으로는 언론의 관심을 다시 끌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76년 라틴 아메리카가 중점 테마였을 때, 2,375명의 기자가 도서전을 보도했지만, 1986년 인도의 경우는 8,100명의 기자가 이를 보도했다. 그렇지만 세상의 분위기는 다시 바뀌어 중점테마에 대해서 80년대 중반부터 언론은 또다시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왜냐하면 중점테마는 60년 학생운동 분위기의 결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빈국 제도이다.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새 주제가 만들어져 출판 시장은 더 넓어졌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무관한 나라들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효과도 나타나, 도서전의 규모는 점점더 커지게 되었다.

국제화 전략이 도서전 성공의 원인

이런 외적인 성장은 단순히 시간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는 거리를 두어온 국가를 끌어들이는 국제화의 길을 간 것이다. 또 하나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것이다. 즉 평화상을 제정하여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전쟁 이미지를 제거하려고 한 점이나, 중점테마 제도와 주빈국 제도

도서전 참가 출판사 및 참가 국가 수

연도	전시 출판사 수	참가 국가 수
1970	2,529	66
1980	3,886	93
1990	6,224	90
2000	4,285+79*	107

출처: Weidhaas 앞의 책, 291쪽.

* 79는 3천 개 출판사에서 구성된 공동 전시자 수

도서전 전시장 면적

연도	전시장 면적
1970	39,000m ²
1980	80,100m ²
1990	131,171m ²
2000	198,558m ²

출처: Weidhaas 앞의 책, 291쪽.

도서전 방문객 수

연도	방문객 수
1970	113,000명
1980	187,000명
1990	245,000명
2000	302,000명

출처: Weidhaas 앞의 책, 291쪽.

를 도입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회 도서전이 국제 도서전으로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해도, 국제화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예를 들면, 1955년과 1956년에 참가했던 중국은 국가호칭 문제로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동독 지역의 출판사들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재건을 자본주의의 심술로 받아들여, 첫 해에는 12개의 출판사가 참가했지만 1952년부터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다 1955년에 소련, 헝가리, 체코슬로

바키아 유고가 "진보적인 사회주의 작품" 더 이상 숨겨놓지 말자고 하면서 참가하자, 동독의 45개 출판사들도 다시 참가하기 시작했다.

1957년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떠났던 중국도 도서전 당국의 오랜 설득 끝에 드디어 1975년에는 다시 전시회에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오랫동안 불참해오던 알바니아에 대해서도 독재가 호샤를 설득하여 도서전에 참가하게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참여 출판사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60년대부터 진행된 국제화의 결과로 도서전의 성격도 변하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출판사와 소매상간의 거래가 주 업무였지만, 70년대부터는 출판사간의 업무가 주종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번역권, 라이선스 및 공동 출판이 주로 논의되었다. 한창일 당시에는 전 세계 판권 계약의 80%가 이곳을 통해 거래되거나, 거래가 시작 또는 종결되었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의 책과 사회주의 책이 교환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중요했다.

평화상 제정은 도서전 상징

지금은 거의 잊혀진 극작가이자 시인인 슈바르츠의 제안으로 1950년에 평화상이 제정되었다. 이 상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국제간 상호이해에 공헌한 개인에게 수여된다.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15.000 유로(약 2천만 원)의 상금은, 출판업자와 서적 상인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된다. 또한 이 평화상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지향해야 하는 이념으로 이해된다. 출판업자와 서적상인들이 제정한 이 평화상은 세계 그 어느 직업군이 마련한 상보다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그간 이상을 받은 인사들을 보면, 알베르트 슈바이처, 마르틴 부버, 헤르만 헤세, 칼 야스퍼스, 파울 틸리히, 에른스트 블로흐, 레오폴드 세

다르 생고르, 로마 클럽, 막스 프리쉬, 옥타비오 파스, 한스 요나스, 바츨라프 하벨, 위르겐 하버마스, 수전 손탁 등이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문학, 예술, 학문 분야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이 평화상은 도서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내의 파울 교회에서 수여된다. 그것도 독일 민주주의의 상징인 파울 교회에서 수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한 문화계 인사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도서전 이념을 상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서전 전야제와 같은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렇게 하여 세상의 많은 관심을 프랑크푸르트로 집중시키게 된다.

언론의 관심이 주빈국 행사 성공의 지름길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서전 또한 언론을 최대한 활용한 점이 도서전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자체가 언론의 비판적 반응에 민첩하게 대응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처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언론의 적극적인 활용은 비단 도서전 자체뿐 아니라 주빈국 행사에도 마찬가지다.

이 점에 대해서는 2000년도 폴란드 주빈국 행사를 위해 일한 바 있던 렘프씨도 강조한다.

(폴란드 주빈국 행사는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나 있다) 조그마한 신생국가인 리투아니아가 주빈국이 되자, 램프씨는 이렇게 조언했다.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많지 않다면, 도서전에 출입하는 언론인들의 관심을 얻는데 사용하십시오. 같이 술을 마시며 밤새 토론을 하여, 그들이 긍정적으로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십시오. 설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리투아니아 출판업자인 추카스씨도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가장 큰 출판사라고 해도 독일인들의 눈에는, 독일의 제일 영세한 출판사보다 못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독일인들이 독일 출판사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책임자로 일하는 루돌프씨는,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 행사로 나누지 말고 가장 중요한 행사에 집중하라고 권고한다. 루돌프씨의 충고는 문학에 집중하라는 말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도서 출판에서 순수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정도이고, 정치, 종교, 경제 등의 분야가 많은 관심을 끈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의 새로운 도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2차 대전 후에 화려

하게 재기하여, 전 세계 도서전의 모델이 되었다. 그 성공에 따르는 수많은 수식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이 매체 변화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일 것이다. 전통적 형태의 책은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새로운 전자 매체가 그 자리를 매워갈 것이다. 전자 출판은 1995년에 1,240개의 관련 회사 및 출판사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전시를 했다. 1998년에는 1,782개의 회사 및 출판사가 전시를 하는 등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전시 장소가 부족해서 전통적 도서전시장을 잠식해 들어가야 할 정도이다. 2000년 들어와서는 판권 등의 문제로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것은 여전히 가장 큰 도전일 것이다.

그 다음의 도전은 젊은 층의 독서율 하락이다. 독일의 전체 독서율은 높아졌지만, 이것은 다독가들의 책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책을 읽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읽고 적게 읽는 사람들은 더 적게 읽는다는 말이다. 특히 30세 이하 젊은 층들의 2000년대 책 소비는 1990년대에 비해서 10% 이상 줄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이다.

세 번째 문제로는 출판사도 지속적으로 큰 회사에 합병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20개의 출판회사가 전체의 90%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26개의 출판사

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1990 년대에 들어와서 도서전의 주요 화제거리는 누가 무슨 책을 발간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회사가 어디로 팔렸느냐가 관심거리였다고 할 정도였다. 소수의 출판사가 전체 출판시장을 좌지우지할 경우 도서전의 의미는 많이 훼손될 것이다.

맺는 말

2005년 한국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함으로써 세계 최고, 최대의 도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도서전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서전 자체뿐 아니라 주빈국도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여러 주빈국들이 행사 후에 거둬들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했듯이, 소수의 행사에 집중하고 언론의 관심을 끌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 문화의 특징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생리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 번의 주빈국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언젠가 우리 문화도 세계 무대에서 많은 관심을 끌 것이다.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5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